

200-3-050. 최근의 鮮內 사상운동의 정세

■ 1927년부터 1928년 사이에 조선헌병사령부가 경성지법 검사정에게 보고한 정보 수록

- 최근의 鮮內 사상운동의 정세, 鮮內 노동·농민운동의 정세, 여성단체 權友會의 정세

1. 最近의 鮮內思想運動 情勢(50권 0003~0304쪽)

조선헌병사령부가 1928년 4월 18일에 고등법원 검사정에게 보고한, 1927년 2월부터 1928년 1월까지의 한국 국내 사상운동 정세이다. 일반, 청년대중운동이 종래의 자유연맹체가 무너지면서 중앙집권적 단일동맹체로 개편되는 경향을 보이고, 250개의 신흥단체가 민족단일당 결성을 목적으로 새로운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新幹會는 100여 支會와 1만여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2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여성 자매단체로 權友會가 있다. 要注意 단체는 172개 단체로서 함남 34개, 경기 31개, 경남·함북 16개, 전남 14개 순이다. 집회활동도 394회에 이르는데, 문맹퇴치, 언론의 자유, 취체법규의 철폐, 생산·분배의 논의, 인신매매 및 유년노동 금지, 계급타파, 자유해방 등을 주로 주장하였다. 당시 주의를 요하는 사상단체 창립상황은 이 문서철 별지 제 1(1927.2~1928.3, 0011~0130쪽) '주의를 요하는 사상단체 창립일람표'를, 注意를 요하는 집회 활동은 별지 제2(1927.2.2~1928.3.1, 0131~0301쪽) '既設團體의 注意를 요하는 集會一覽表'를 참조

2. 鮮內 勞動·農民運動의 情勢(50권 0305~0534쪽)

1927년 3월부터 1928년 2월까지 1년간 조직된 勞動團體는 96개 단체에 이른다. 그 중 노동단체 350개가 합하여 60개 단체로, 농민단체는 166개 단체가 36개 단체가 되는 단일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신흥단체 중 가장 주의를 요하는 단체는 朝鮮勞動總同盟의 해체분립 현상이다. 1924년 4월에 조직된 조선 노동총동맹은 1927년 8월 서면대화 형식으로 贊否를 물어 9월에 노동, 농민총동맹으로 분립되었다. 노동단체의 집회 중 주의를 요하는 것은 163개로서 경남, 함남, 황해, 경기순이다. 농민단체의 집회활동은 30회로서, 주로 소작조건의 개선, 소작인의 생활안정, 지위향상 등을 위한 것이며, 노동단체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쟁의는 66건에 쟁의인원 9,000여 명에 이른다. 60개 노동단체의 창립일람표와 농민단체 창립일람 표는 부록 제1~2(0317~0366쪽)를 참조바란다. 부록 제3(365쪽)은 노동단체의 집회이며, 부록 제4(0441쪽)은 농민단체의 활동이다.

3. 女性團體 權友會의 情勢(0535~0637쪽)

朝鮮에 있어서 女性운동단체는 1921년 4월 경성여자고학생상조회 창립으로 비로소 시작되었다. 민족주의 혹은 공산주의 남성단체들의 후원을 받아 왔다. 그러나 1925년 조선공산당사건 검거로 후원을 잃어, 1926년 일본 동경 舊一月會 간부 安光泉에 의해 北風系 경성여자청년동맹과 서울系 경성여자청년회 異派가 합하여, 1926년 11월 경성중앙여자청년동맹을 결성하였다. 1927년 2월 新幹會가 창립되자, 여자청년동맹 간부 金活蘭·俞珏卿 등은 同會에 가입, 간부로 추대되었다. 그러므로 여성운동의 方向도 新幹會의 方針에 따라 민족의 각성, 여성해방을 주창하여 1927년 5월 27일 여성통일단체인 權友會를 創立하게 되었다. 權友會 設立趣旨文, 權友會 本部規約, 權友會 支會規約은 별지 제 1~3(0551~0562쪽)을 참조. 그리고 權友會 首腦部와 各道 支會 執行委員長, 執行委員은 본 문서철 0565~0637쪽 참조